

Market Index / 21일

코스피지수 ▼	2096.60 -28.72	코스닥지수 ▼	635.99 -13.88	유가(WTI, 달러) ▲	57.01 +1.66	환율(원)	1USD 100¥	살매 1197.08 1103.30	팔매 1155.92 1065.36	1EUR 1330.04	살매 175.46	1CNY 1278.12	팔매 158.76
---------	-------------------	---------	------------------	---------------	----------------	-------	--------------	--------------------------	--------------------------	-----------------	--------------	-----------------	--------------

#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철수 수순

### 2017년 사드사태 이후 중단체관광객 감소 직격탄 박흥배 사장 "시내면세점 철수 직원 불이익 없다"

제주관광공사가 시내면세점에 대한 철수 수순을 밟는다. 이에 따라 시내면세점에 투입됐던 인력 등을 지정 면세점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흥배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21일 웰컴센터 기자회견을 찾아 "시내면세점 운영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전제조건은 제주관광공사의 재정 안정화"라며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철수를 전제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힌지 하룻만에 나온 제주관광공사의 입장이다.

박 사장은 "시내면세점 직원 인사 부분을 포함해 재고상품이나 계약사항 등을 모두 검토한 뒤 진행하겠다"며 "마케팅 부서 등에 인원이 필요해

인력을 재배치할 것으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이어 "시내면세점 정규 직원 20명은 지정면세점이나 마케팅 부서로 재배치하고, 면세점에 파견된 브랜드 직원 80명은 브랜드업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조정할 계획"이라며 "시내면세점은 철수하지만 현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영업 중인 지정면세점 영업은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또 "적자에 허덕이는 이유는 2017년 3월 사드 사태 이후 중국 단체관광객이 발길을 끊은 데다 '다이공'(중국 보따리상)에 대한 수수료 등 할인이 워낙 커 중소·중견 면세점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 탓"이라며 "다이공에 대한 수수료 부분만 걸러져도 적자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의 방향 지시와 박 사장의 구체화에 따라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은 면세사업 특히 완료기간(2021년 2월) 6개월 전인 내년 8월 관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



제주관광공사가 시내면세점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공사는 시내면세점 철수에 따른 인력을 지정면세점 등으로 재배치해 영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영업중인 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전경. 한리일보 DB

이다. 2016년 롯데호텔제주에서 개장해 제주신화월드로 이전 영업 중인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은 2017년 40억5300만원, 2018년 41억2100만원, 올해 상반기 10억7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김경섭기자

## "어려움 겪는 관광 경쟁력 높일 것"

### 부동석 제주도관광협회장 어제 취임식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21일 제주메트로호텔 컨벤션홀에서 제주도관광협회 대의원과 협회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석 제35대 도관광협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2019. 11. 21(목) 11:30  
메트로호텔 1층 컨벤션



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2020년은 제주관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 일본 등과의 외교적 마찰 등으로 녹지 않은 한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관광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약들이 헛공약이 아닌 진

실 공약으로 이행하기 위해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추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항상 열린 자세와 소통으로 회원중심의 사무본부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섭기자



## 필리핀 대표 방송사 제주서 예능 촬영

### 도내 주요 관광지 등 소개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이 추진된다.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30일까지 필리핀 대표 방송사 ABS-CBN이 필리핀 인기 TV 프로그램 '아자아자 타요! 시즌 3 제주'를 촬영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K-POP 아이돌과 필리핀 유명 연예인이 함께하는 문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촬영본은 ABS-CBN의 아시아노벨라

채널에서 방송된다. >> 사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필리핀 배우 겸 가수 크리스텔은 유튜브 구독자 수가 113만명 이상이며, 페이스북 팔로워가 320만명에 이르는 인기 스타다. 또 배우 도밍고와 방송인 국선영, 도니 팡일리안 등이 출연한다.

이들은 성산일출봉, 애월해안도로, 협재해수욕장, 오설록 티뮤지엄, 비자림, 사려니숲 등 제주의 주요 관광지와 제주민속촌, 레일바이크, 잠수함, 승마 등 주요 체험 관광지를 배경으로 미션과 문화체험을 하며 제주를 홍보할 예정이다. 김경섭기자 kks@ihalla.com

## 제주 올해산 레몬 첫 출하... 가격 호조

### 수입산 비해 신선도·안전성 부분 소비자 호평

감귤 틈새시장 및 수입산 레몬 대체를 위해 동부농업기술센터가 '레몬 재배 시범단지'에서 지난해부터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레몬이 올해 첫 출하했다.

제주자치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동부지역에서 생산된 레몬이 지난 15일 도내 하나로마트에 첫 출하된 것을 시작으로 이달 하순 본격 출하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2018년 기준으로 도내 레몬은 27농가에 10.4ha 정도 재배하고 있으며, 동부농업기술센터는 2018-2019년에 추가로 9농가 3.1ha 시범단지를 조성했다.

국내 레몬 수입량은 2010년 5600t에서 2018년 1만7500t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레몬은 면역력 증진, 항암효과, 소화촉진, 요로결석 예방 효과, 인후염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첫 출하한 레몬 가격은 전년도와 비슷한 kg당 6000원이나 수입산 상품 4000원 보다 50% 높은 가격으로, 수확량은 지난해 8000kg에서 올해 1만3000kg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산 레몬은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 안전성 등이 높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으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노지감귤과 만감류 위주의 감귤재배에서 탈피하고 틈새시장을 겨냥한 제주산 레몬 육성을 위해 재배기술 교육, 현장컨설팅 등 품질향상 기술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동부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제주산 레몬을 차별화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소비자가 좋아하는 새로운 감귤 보급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 "제주 11월 입주 경기 전망 암울"

### 실사지수 전망 43.7 전국서 최하위 기록 10월 입주율도 바닥

전반적인 경제침체에 의한 주택시장의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입주여건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주택산업연구원의 '2019년 11월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11월 HOSI 전망은 43.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전달에 견줘 16.3p가 추락하며 울산(17.3)·충남(16.5)에 이어 하락폭이 매우 크다. 제주의 경우 9월 50.0, 10월 60.0에서 소폭 올랐으나 11월 전망은 또다시 급락하며 도내 주택공급자들의 고통을 대변했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에 있는 단지

의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이다.

10월중 제주지역 입주율도 67.5%(전국평균 79.4%)로 바닥이다. 이와 맞물린 10월중 HOSI 실적도 56.2(전국평균 76.9)에 머물며 꼴찌다.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기존 주택매각 지연(50.7%)에 따른 어려움과 대출규제로 인한 주거이동 제약으로 지방주택의 미입주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서울의 11월 HOSI 전망은 102.0으로 지난해 9월 이후 14개월 만에 100선을 회복했다. 비규제 지역인 경기(93.7)와 조선업 등 지역경제 회복이 기대되는 울산(93.7)은 2017년 8월 이후 27개월 만에 90선을 기록했다. 백영탁기자 haru@ihalla.com

독자제보 750-2232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010-8660-1263

등록번호 : 가 4402-408 대표/공인중개사 박영희

<p><b>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li> <li>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li> <li>남원 하례리 2300㎡ 자연녹지(과)</li> <li>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li> <li>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특)</li> <li>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li> </ul>	<p><b>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2,500㎡ 건 400㎡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1600㎡, 건 16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li> <li>삼도1동 2층 주택 대 165㎡, 건 150㎡</li> <li>애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점)</li> <li>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li> <li>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li> <li>한경면 저지리 전 (11,000㎡) 계획관리지역</li> </ul>
---	---

**동부공인중개사** ☎ 010-2800-4595 064-747-5115

신제주로터리 현일빌딩 3F 대표/공인중개사 부 문복

<p>※ <b>이도동 칼호텔동측 대 192㎡ 주택 80㎡ 3억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안동마을 맹지 대 674㎡/매가 50㎡ 5억</li> <li>해안동 생관아(목장) 맹지 28,842㎡ 6억</li> <li>아라동기차촌내 1090㎡ 9.24억</li> <li>아라동기차촌내 1090㎡ 9.24억</li> <li>하례5.16도로동측과수원 8856㎡ 11억원</li> </ul>	<p>※ <b>연동명주마을 신설2차선도로 점 168㎡ 3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애월수상봉저수지인근 카페용지 620㎡ 3.1억</li> <li>봉성 시멘트도점 임야 842㎡ 6000만원</li> <li>고성외고인근2차선점 대지조성 481㎡ 6.59억원</li> <li>한림상명 조림식주택 60㎡/대 430㎡ 1.5억</li> <li>관포 바다경관 과 자연녹지 3028㎡ 6.49억원</li> </ul>	<p>※ <b>애월남읍자연취락지구 대지 410㎡ 1.65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9억</li> <li>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5억</li> <li>우도하교수동해수욕장인근 10,323㎡ 12.59억원</li> <li>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9억</li> <li>김녕해안도로점 2474㎡ 15억원</li> </ul>
--	---	---

본 광고는 사전심의필 2007-GN1-25-0147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와 함께 하십시오.

1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2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 및 A/S를 책임집니다.

신경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 상담 가능

**소리샘 보청기 TEL. 753-5347**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